제37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현 안 보 고

2019. 8.

한 국 은 행

— 차　　례 —

Ⅰ. 국내외 경제상황 ····· 1

1. 세계경제

2. 국내경제

Ⅱ. 주요 경제현안 ····· 8

1. 대외 경제여건 악화

2.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3.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

< 주요 통계자료 >

Ⅰ. 국내외 경제상황

1. 세계경제

(실물경제)

□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으로 교역이 위축되고 **성장세**가 **둔화**

○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우 수출과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흐름**이 **약화**

□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중국 경기 흐름, 브렉시트 향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IMF의 2019년 성장률 전망(전망월, %): 19.1월 3.5 → 4월 3.3 → 7월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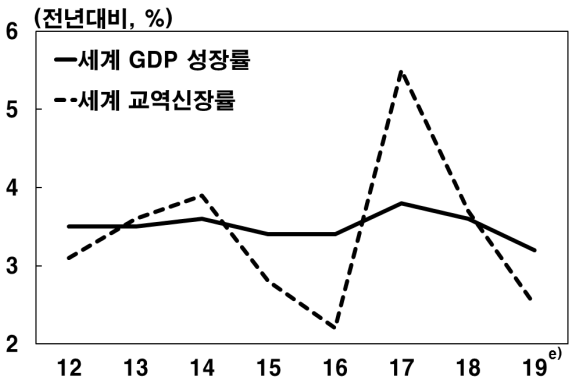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1)]

(전년대비, %)

	2017년	2018년	2019년[e)]
세 계	3.8	3.6	3.2
선 진 국	2.4	2.2	1.9
(미국)	2.4	2.9	2.6
(유로)[2)]	2.4	1.9	1.2
(일본)	1.9	0.8	0.9
신 흥 국	4.8	4.5	4.1
(중국)	6.8	6.6	6.2
(인도)[3)]	7.2	6.8	7.0

주: 1) IMF 전망(2019.7월) 기준
2) ECB 전망(2019.6월) 기준
3) 회계연도 기준
자료: IMF, ECB, 각국 통계기관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



자료: IMF

(국제금융시장)

□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변동성이 확대**

○ 특히 8월 들어 주요국 금리 및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중국 위안화 환율은 2008.5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을 상회

—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증대도 주가의 하락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미국 장단기금리차, bp)	2018년말	2019.3말	6말	7말	8.16일
▪ 10년물 – 2년물	20	15	25	14	7[1)]
▪ 10년물 – 3개월물	33	2	-8	-5	-31

주: 1) 8.14일 장중 역전현상이 발생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2018년말	2019.1말	3말	6말	7말	8.16일
미국 국채금리(10년)	2.68	2.63	2.41	2.01	2.01	1.56
독일 국채금리(10년)	0.24	0.15	-0.07	-0.33	-0.44	-0.69
MSCI(선진국)	1,883.9	2,028.5	2,107.7	2,178.4	2,187.6	2,108.5
MSCI(신흥국)	965.8	1,049.9	1,058.1	1,054.9	1,037.0	970.3
미달러화지수(DXY)	96.2	95.6	97.3	96.1	98.5	98.1
위안/달러(CNY)[1)]	6.8785	6.7084	6.7127	6.8692	6.8826	7.0408

주: 1) 동경시장 20:00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 Dubai유(달러/배럴, 기간중 평균):
2019.4월 70.7→5월 69.1→6월 61.3→7월 62.9→8.1~16일 58.9

○ **향후 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OPEC 감산 등 상승요인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부진 등 하락요인이 혼재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

2. 국내경제

가. 실물경제

(성장 및 고용)

□ **국내경제**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미약**

○ 다만 **2/4분기중**에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정부의 재정집행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장률이 **전기대비 1.1%**(전년동기대비 2.1%)를 기록

□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중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전망

○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의 전개양상**, 글로벌 **반도체경기** 회복 속도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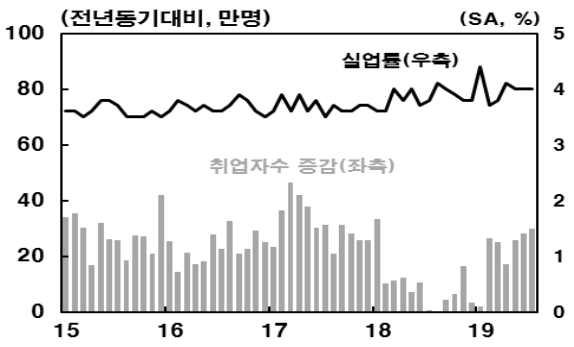
주요 지출항목별 GDP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상반	하반	연간	1/4	2/4	하반[1]	연간[1]
GDP	2.8	2.5	2.7	1.7	2.1	2.4	2.2
(민간소비)	3.3	2.3	2.8	1.9	2.0	2.5	2.3
(건설투자)	-1.0	-7.2	-4.3	-7.2	-3.5	-1.3	-3.3
(설비투자)	2.5	-7.3	-2.4	-17.4	-7.8	2.3	-5.5
(상품수출)	1.4	5.1	3.3	-0.9	-0.6	2.0	0.6

주: 1) 2019.7월 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취업자수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 및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되면서 **0%대 중후반** 수준을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

○ **내년 이후** 공급측 물가 하방압력 완화 등으로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점차 높아지겠으나** 물가안정목표(2.0%)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주택매매가격**은 금년 들어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서울**은 일부 **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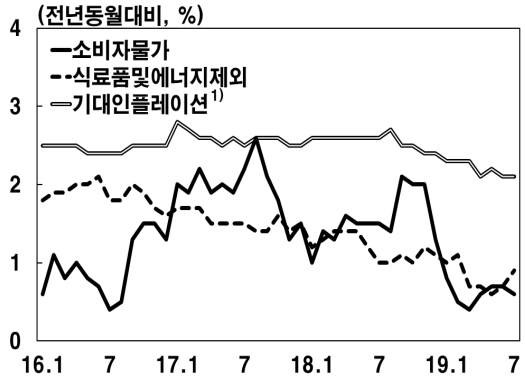
*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4월 -0.2→5월 -0.1→6월 0.0→7월 0.1

○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

(서울, 아파트 기준)	2018.3/4	4/4	2019.1/4	4월	5월	6월	7월
▪ 매매가격 전망지수[1)2)]	121.7	86.4	75.0	81.4	86.5	95.4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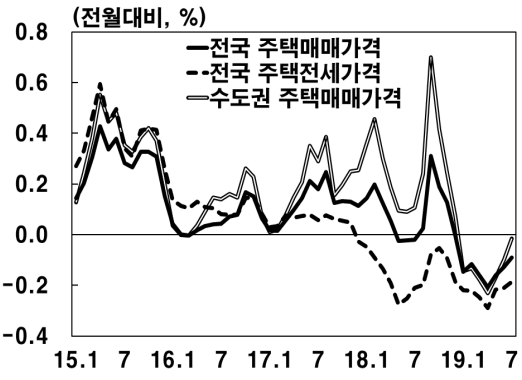
주: 1) 100보다 큰 경우 3개월 후 아파트가격 상승 응답 비중이 하락 비중보다 높음을 의미
2) 분기는 기간중 평균
자료: KB국민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1) 일반인(향후 1년) 기준(2018.9월 이후는 신표본)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



자료: 한국감정원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지속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축소**

○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및 반도체·석유류제품의 수출부진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

(수출 증가율[1], %)	2018.연간	상반	하반	2019.1/4	2/4
▪ 반도체	+28.9	+42.0	+18.8	-20.7	-22.6
▪ 석유류제품	+19.6	+22.7	+16.7	-4.8	-11.1

주: 1) 통관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관세청

○ **서비스수지**는 여행·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이 **축소**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4%대에서 금년중 3%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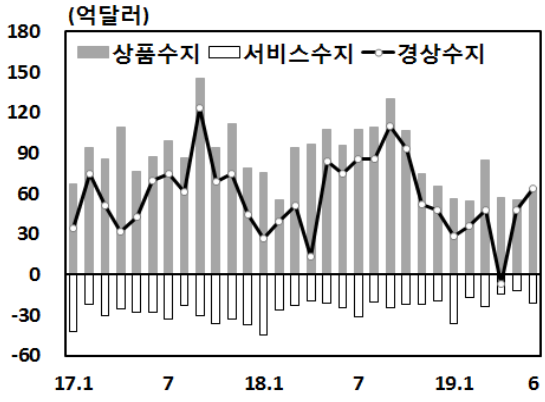
경상수지 주요 항목[1)]

(억달러, %)

	2018[p)]	상반[p)]	2019.상반[p)]
경상수지	764	289	218
상품수지	1,119	525	371
수출	6,254	3,078	2,777
	(7.8)	(8.9)	(-9.8)
수입	5,136	2,553	2,407
	(10.0)	(10.7)	(-5.7)
서비스수지	-297	-158	-123
본원소득수지	28	-29	6
이전소득수지	-85	-49	-36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항목별 경상수지 변화



자료: 한국은행

나. 금융·외환시장

(금리·주가·환율)

□ **시장금리** 및 **주가**는 7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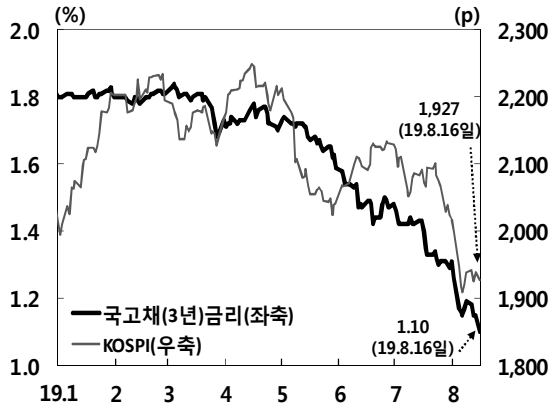
	2018년말	2019.3말	6말	7말	8.16일
▪ 국고채 금리(3년, %)	1.82	1.69	1.47	1.29	1.10
▪ KOSPI	2,041	2,141	2,131	2,025	1,927

□ **원/달러 환율**은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7월 이후 빠르게 상승

	2018년말	2019.3말	5말	6말	7말	8.16일
▪ 원/달러 환율	1,115.7	1,135.1	1,190.9	1,154.7	1,183.1	1,210.8
(전일대비 변동률[1], %)	0.41	0.21	0.30	0.32	0.29	0.47

주: 1) 월중 평균

국고채(3년)금리 및 주가지수



자료: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원/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외국인 증권투자)

□ **외국인 증권투자**는 대체로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8월 들어서는 **주식을 중심으로 순매도**

	2019.1~8월	5월	6월	7월	8월[1]
▪ 주식 순매수(조원)	5.0	-3.1	0.4	1.9	-1.9
▪ 채권 보유증감(조원)	11.9	7.2	5.3	-0.4	1.5

주: 1) 8.1~16일중

(가계 및 기업 대출)

□ **가계대출**은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 등으로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움직임

□ **기업대출**(은행)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 노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한편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가계대출에서 소폭 상승

(연체율, %)	2018년말	2019.3말	6말[1)]
▪ 은행 가계대출	0.26	0.29	0.27
▪ 비은행 가계대출	1.55	1.83	1.85
▪ 은행 중소기업대출	0.49	0.56	0.49

주: 1) 잠정치 기준

가계 및 기업 대출[1)]

(기간중 증감액, 조원)

	2017	2018	2019				2019.7말 잔액
	1~7월	1~7월	1~7월	5월	6월	7월	
가계대출	50.5	40.2	24.3	6.0	5.0	5.9	1,360.9
은행 가계대출	29.7	29.8	27.1	5.0	5.4	5.8	854.7
주택담보대출	21.7	17.6	22.2	2.9	4.0	3.6	630.1
기타대출[2)]	8.1	12.1	5.1	2.1	1.5	2.2	223.5
비은행 가계대출	20.8	10.4	-2.9	1.0	-0.4	0.1	506.1
은행 기업대출	27.6	30.8	29.2	6.0	2.1	1.5	853.3
대기업	2.0	6.2	-0.3	0.6	-2.2	-1.1	154.3
중소기업	25.7	24.6	29.6	5.4	4.3	2.6	699.0

주: 1) 통화통계 속보치 기준(가계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기양도분에 대한 상환액은 차감)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Ⅱ. 주요 경제현안

1. 대외 경제여건 악화

(현 황)

□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악화**

○ **(일본 수출규제)**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7.4일 시행)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8.2일 결정, 8.28일 시행)

*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이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화이트국가에서 적용받던 일반포괄허가 취득이 불가능해지고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개별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catch-all' 규제가 적용

▪ 예외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율규제프로그램'(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인증을 받은 ICP기업들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음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분류		대상국가	허가방식	세부설명
전략물자 (1,120개)	민감품목 (263개)	모든 국가	개별허가	무기 또는 무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품목
	비민감품목 (857개)	화이트국가	일반포괄허가	무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품목 (예) 공작기계, 집적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
		일반국가	특별일반포괄허가[1], 개별허가	
비전략물자		화이트국가	(허가 불필요)	(예)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등
		일반국가	캐치올 허가	

주: 1) ICP기업만 가능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 **(미·중 무역분쟁)** 미국이 대중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

▪ 미국은 **3,000억달러 대중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8.1일)*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등으로 대응

*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관세 부과를 당초 9.1일에서 12.15일까지 연기(8.13일 발표)

▪ 미 재무부는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응하여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일)

○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시한(금년 10월말)이 다가온 가운데 최근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

▪ 영국 내각이 EU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인사로 구성되고 EU도 재협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참가자들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

○ **(지정학적 리스크) 서방국가와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홍콩내 시위 격화**, **이탈리아 연정 붕괴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대

*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 유예조치 중단(5.2일)에 대해 이란이 적극 대응 입장을 견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

(영 향)

□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

○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소재·부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관세인상과 같은 가격규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

—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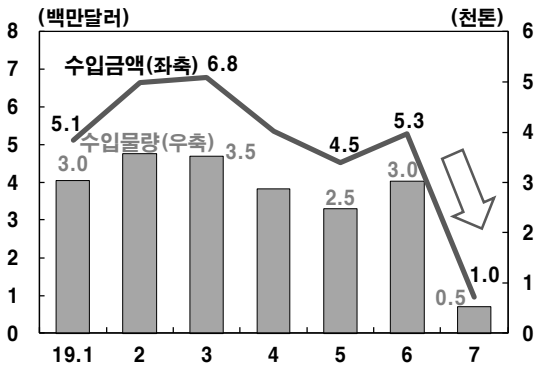
▪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신산업인 비메모리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등의 발전이 지연될 우려

품목별 對일본 수입비중 및 점유율[1]

수입품목	관련산업	對일본 수입비중[2]	일본의 세계점유율[3]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34.6	37.6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반도체	32.0	30.5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디스플레이	82.8	54.1
수치제어식의 수평선반	기계	63.5	32.3
산업용 로봇	기계	58.6	35.4
머시닝 센터	기계	47.8	36.9

주: 1) HS코드 6단위 기준
2) 對일본 수입액/전체 수입액
3) 일본의 수출액/전체국가 수출액

對일본 에칭가스[1] 수입물량·금액



주: 1) 일본 수출규제 대상 이외 세부품목도 포함(HS코드 10단위 기준)
자료: 관세청

— 수입규제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애로 발생

— 한편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D램의 기업간 대규모 거래 가격인 고정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현물가격(소매가격)은 생산 및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상승*

* D램(8Gb) 고정가격 : 6월중 3.31달러 → 7월중 2.94달러
D램(8Gb) 현물가격 : 6월말 3.14달러 → 8.16일 3.53달러

○ 미국의 대중수입품(3,000억달러) 추가관세 부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중 무역분쟁 심화현상**은 우리 **수출을 더욱 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양국간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더욱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우려

—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투자 위축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거나 **여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우리경제도 적지 않게 영향받을 소지

* 우리나라의 對영국 수출비중(1.1%)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2.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현 황)

□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통관)이 금년중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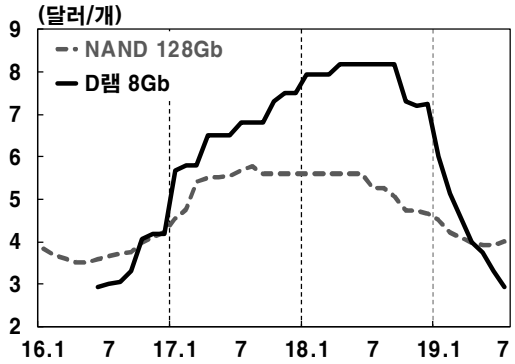
* 수출(통관) 증가율(%) : 2018.4/4분기 +7.7 → 2019.1/4분기 -8.5 → 2/4분기 -8.5 → 7월 -11.0

○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단가가 크게 낮아진 **반도체**와 **석유류제품**이 **수출 감소**를 **주도***

* 금년 1~7월중 전체 수출 감소(전년동기대비 -8.9%)에서 반도체·석유류제품의 기여도는 -6.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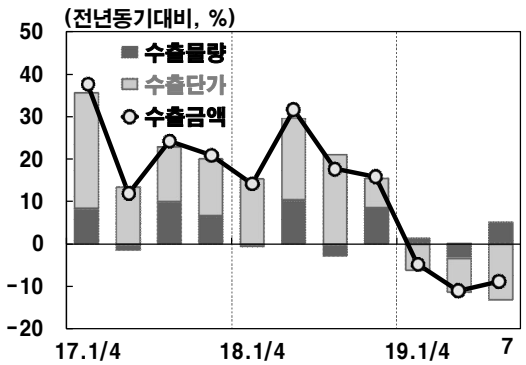
▪ 특히 최근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세 심화는 미국의 중국 기업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 데 주로 기인

반도체 주요 품목별 단가[1)]



주: 1) 고정가격 기준
자료: DRAMeXchange

석유류제품 수출 금액·물량·단가[1)]



주: 1) 수출 금액중량(톤)을 이용하여 시산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또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와 글로벌 교역심리 위축으로 인해 **수출물량**도 **감소**

*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 2019.1/4분기 -4.5→2/4분기 -4.1→7월 -5.6

▪ 지난 5~6월중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된 이후 우리 수출물량 감소폭이 확대*

*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교역 상대국이 수입을 미루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수출물량지수 증가율(%): 2019.1/4분기 -2.6→4월 +2.2→5월 -3.3→6월 -7.3

○ 다만 **자동차 수출**이 금년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박 수출**도 2/4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

* 자동차는 1~7월중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선박은 1/4분기중 24.9% 감소에서 4~7월중 34.0% 증가로 전환

□ 수출과 연계성이 큰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된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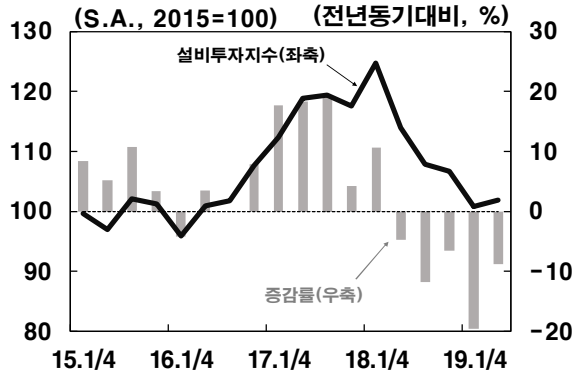
○ 특히 **IT부문**은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부진**이 **심화**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은 지난해 3/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52.4% 감소

○ **비IT부문**은 **유지·보수** 중심의 **투자**에 머물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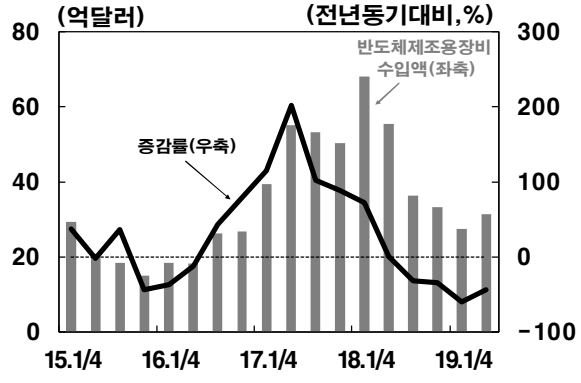
▪ 조선은 생산설비 과잉으로 당분간 신규투자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며, 석유화학 및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투자여건이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

설비투자지수



자료: 통계청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관세청

(전 망)

□ 수출과 설비투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흐름 지속,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수출(통관) 증가율 전망(%): 2018년 +5.4 → 2019년e -7.6 → 2020년e +1.8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2018년 -2.4 → 2019년e -5.5 → 2020년e +3.4

□ 한편 **일본 수출규제**의 경우 반도체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겠으나, **장기화** 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우려

○ **설비투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와 공작기계 수입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반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는 100개 전략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의 R&D 예산을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8.5일)

< 참고 >

최근 반도체경기 현황 및 전망

(현 황)

□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해진 **글로벌 반도체경기**의 **회복이 지연**

○ 메모리반도체 **공급우위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단가**가 **상당폭 하락**하고 **전세계 매출액**도 **크게 감소**

– 금년 상반기 **전세계 D램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31% 감소**하고 평균 **단가도 30% 내외 하락**(Gartner, 2019.6월)

○ 이는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 부진**, 서버업체 등 IT기업의 **메모리 구매 지연**, **IT부문으로의 미·중 무역갈등 범위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특히 전세계 **데이터센터 투자**가 **크게 부진**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용 **서버 제조**에 소요되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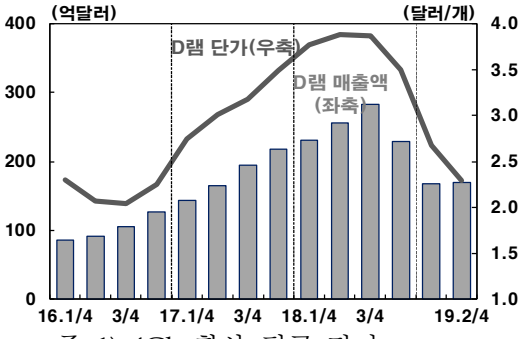
– 미국의 중국 기업 거래제한 등으로 인해 **글로벌 IT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 망)

□ 미·중 무역갈등과 메모리 수요처의 구매지연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도체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반도체 수출**도 **금년말까지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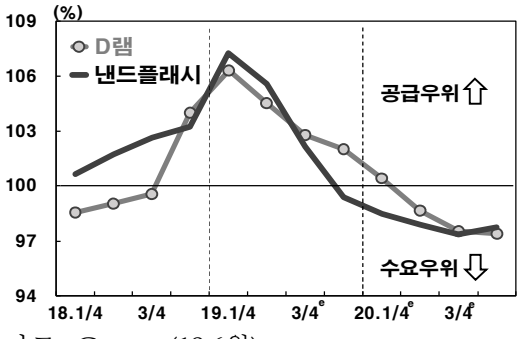
○ 주요 기관은 **낸드**가 **금년 4/4분기, D램**이 **내년 2/4분기 수요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Gartner, 2019.6월)

전세계 D램 매출액 및 단가[1)]



주: 1) 4Gb 환산 평균 단가
자료: Gartner(2019.6월)

D램과 낸드 공급/수요 비율



자료: Gartner(19.6월)

3.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증대

(현 황)

□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

○ 8월 들어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는 1,900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상회

	2019.1~6월	7월	8.1~16일
▪ 국고채 금리[1] 변동폭(3년, bp, %)	-35 <1.47>	-18 <1.29>	-19 <1.10>
▪ KOSPI[1] 등락률(%)	+4.4 <2,131>	-5.0 <2,025>	-4.8 <1,927>
▪ 원/달러 환율[1] 변동율(%)[2]	-3.4 <1,154.7>	-2.4 <1,183.1>	-2.3<1,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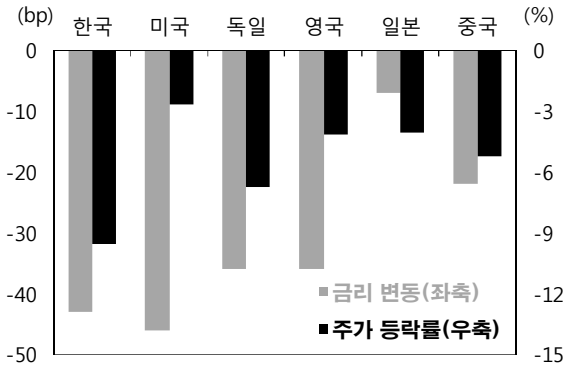
주: 1) < > 내는 기말 기준
2) (+)는 강세, (-)는 약세

— **장단기금리의 역전폭**이 확대*

* 국고채(3년) −통안증권(91일): 2019.4말 -4bp → 6말 -9bp → 8.16일 -20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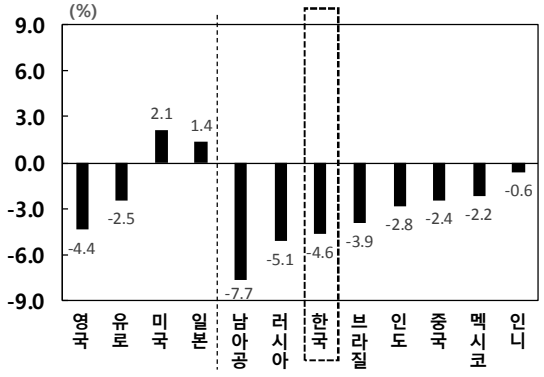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보다 민감**하게 반응

주요국 금리[1] 및 주가 변동[2]



주: 1) 10년물 기준
2) 7.1~8.1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율[1)2)]



주: 1) 7.1~8.16일 기준, 미국은 달러화지수(DXY), 여타 국가는 미 달러화대비 변화율[(+) 강세·(-) 약세]
2) 유로화·엔화·파운드화는 뉴욕시장 16:30분 기준(Reuters)
자료: Bloomberg, Reuters, ECOS

□ 이같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조달** 여건 및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

○ 외평채 **CDS 프리미엄**과 대외차입 **가산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2018.12월	2019.1월	5월	6월	7월	8.16일
▪ 외평채 CDS 프리미엄(5년, 월말, bp) :	39	32	37	32	28	31
▪ 단기 대외차입 가산금리(월평균, bp) :	2	-3	5	4	3	-
▪ 장기 대외차입 가산금리(〃) :	30	62	63	55	42	-

○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규제기준*을 큰 폭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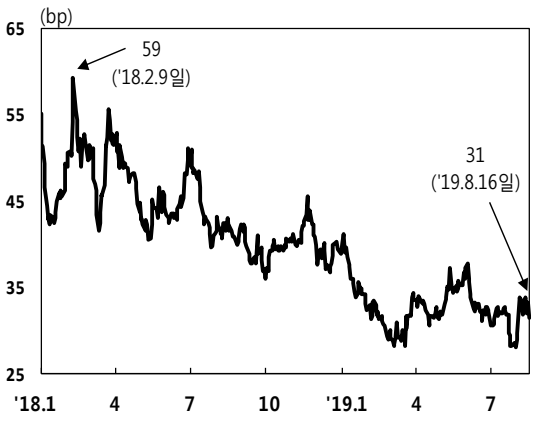
* 2019년 일반은행 80%, 특수은행 80%

▪ 외화 LCR(월평균, %) <일반은행> : 2019.4월 117 → 5월 111 → 6월 115
<특수은행> : 〃 99 → 〃 98 → 〃 98

○ 7월말 **외환보유액**은 4,031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단기외채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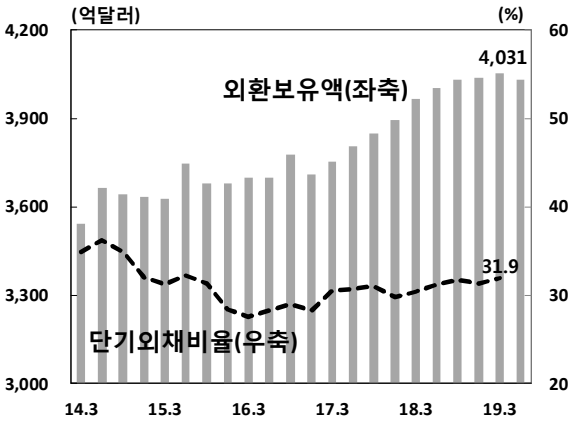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억 달러) : 2018.12말 4,037 → 2019.3말 4,053 → 7말 4,031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2018.9말 31.7 → 12말 31.4 → 2019.3말 31.9

외평채 CDS 프리미엄[1)]



주: 1) 외평채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1)]



주: 1) 단기외채/외환보유액
자료: 한국은행

□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의 동향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일본계 투자자의 2019.6월말 현재 국내증권투자 잔액은 129억달러(외국인 총 잔액의 2.2% 수준, 주식 및 채권 비중은 각각 2.3% 및 1.3% 수준)이며,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 기업 등에 대한 대출채권은 23.3조원(전체 은행의 우리 기업 등에 대한 대출채권의 1.9% 수준)

(전망 및 대응)

□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양상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노력**을 지속할 계획

○ 시장불안 심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보완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

○ 특히 대외 여건 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 주요 통계자료 >

가. 국민계정

나. 산업 및 고용 · 임금

다. 국제수지 및 무역

라. 외환 및 국제금융

마. 통화금융

바. 자본시장

사. 물가

아. 기업경영분석

가. 국민계정

	2015	2016	2017	2018p				2019p	
				(연간)	1/4	2/4	3/4	4/4	1/4	2/4
경제성장률(%)[1) 2)]	2.8	2.9	3.2	2.7	1.0 (2.8)	0.6 (2.9)	0.5 (2.1)	0.9 (2.9)	-0.4 (1.7)	1.1 (2.1)
민간소비	2.2	2.6	2.8	2.8	0.7	0.5	0.4	0.8	0.1	0.7
설비투자	5.1	2.6	16.5	-2.4	4.3	-8.4	-4.0	3.2	-9.1	2.4
건설투자	6.9	10.0	7.3	-4.3	0.9	-2.5	-6.0	1.8	-0.8	1.4
재화 및 서비스 수출	0.2	2.4	2.5	3.5	-3.4	-0.7	-3.9	1.4	3.3	-2.3
실질GNI증감률	6.3	4.4	3.3	1.2	1.3	-0.6	0.3	0.0	-0.3	‥
명목GDP규모(조원)	1,658.0	1,740.8	1,835.7	1,893.5	428.7	450.8	453.0	475.2	435.8	460.2
1인당 GNI(달러)	28,814	29,394	31,734	33,434	-	-	-	-	-	-
총저축률(%)	36.4	36.8	37.1	35.8	35.9	35.9	36.2	35.3	34.5	‥
국내총투자율(%)	29.5	30.1	32.3	31.4	32.1	32.0	30.0	31.4	30.7	‥

주 : 1)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 분기성장률은 2015년 연쇄가격기준, 실질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성장률

나. 산업 및 고용·임금[1)]

	2015	2016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2015=100)[2)]									
생산지수	100.0 (-0.3)	102.3 (2.3)	104.6 (2.2)	105.9 (1.2)	105.1 (-2.4)	106.6 (0.0)	107.8 (0.1)	104.8 (-3.1)	‥
출하지수	100.0 (0.3)	101.5 (1.5)	102.4 (0.9)	102.2 (-0.2)	103.6 (-1.1)	101.6 (0.0)	103.1 (-1.8)	101.7 (-2.7)	‥
재고지수[3)]	99.7 (5.4)	97.5 (-2.2)	105.3 (8.0)	113.7 (8.0)	113.4 (4.6)	116.9 (6.8)	117.7 (8.3)	115.8 (6.1)	‥
총취업자(천명)	26,178 (1.1)	26,409 (0.9)	26,725 (1.2)	26,822 (0.4)	26,805 (0.9)	27,038 (0.6)	27,322 (1.0)	27,408 (1.0)	27,383 (1.1)
실업률(%)[4)]	3.6	3.7	3.7	3.8	4.3	4.4	4.0	4.0	3.9
임금(천원)[5)]	3,672 (2.8)	3,807 (3.7)	3,907 (2.6)	4,166 (6.6)	4,014 (3.4)	3,909 (3.8)	3,755 (3.8)	‥	‥

주 :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원지수 기준(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
3) 연자료는 연말월 수치 기준
4) 원지수 기준
5) 제조업(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기간중 평균 임금

다. 국제수지 및 무역

(억달러)

	2015	2016	2017	2018[p]	2019[p]				
					3월	4월	5월	6월	7월
경 상 수 지	1,051.2	979.2	752.3	764.1	48.2	-6.6	48.1	63.8	‥
상 품 수 지	1,202.8	1,164.6	1,135.9	1,118.7	84.7	56.7	55.1	62.7	‥
서비스수지	-146.3	-173.4	-367.3	-297.4	-23.4	-14.3	-11.6	-20.9	‥
본원소득수지	44.5	45.7	53.4	27.8	-7.4	-43.3	11.6	27.7	‥
이전소득수지	-49.9	-57.7	-69.6	-85.0	-5.7	-5.7	-6.9	-5.7	‥
자 본 수 지	-0.6	-0.5	-0.3	1.9	0.1	-0.2	0.4	0.0	‥
금 융 계 정[1]	1,027.8	998.1	844.3	704.9	61.8	3.8	45.5	65.2	‥
수출(통관액)[2]	5,267.6 (-8.0)	4,954.3 (-5.9)	5,736.9 (15.8)	6,048.6 (5.4)	470.1 (-8.4)	488.0 (-2.1)	457.7 (-9.7)	440.9 (-13.7)	460.9 (-11.0)
수입(통관액)[2]	4,365.0 (-16.9)	4,061.9 (-6.9)	4,784.8 (17.8)	5,352.0 (11.9)	419.4 (-6.6)	449.1 (2.8)	436.3 (-1.9)	401.0 (-10.9)	436.9 (-2.7)

주 : 1) 순자산 기준, 순자산 증가는 (+), 순자산 감소는 (-)
2)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관세청 19.8.19일 조회기준

라. 외환 및 국제금융

		2016	2017	2018	2019				
					4월	5월	6월	7월	8.16일
환 율	₩/ $[1]	1,207.7	1,070.5	1,115.7	1,168.2	1,190.9	1,154.7	1,183.1	1,210.8
	₩/100¥[2]	1,035.3	949.2	1,008.8	1,048.9	1,093.1	1,072.4	1,090.1	1,140.6
외환보유액 (억달러)		3,711.0	3,892.7	4,036.9	4,040.3	4,019.7	4,030.7	4,031.1	‥
대외채무[3] (억달러)		3,821.6	4,120.3	4,406.0	4,405.9[4]	-	‥	-	-

주 : 1) 연월말 종가환율
2) 연월말(하나은행 고시)
3) 기말 기준(2018년말, 2019.3월말은 잠정)
4) '19.3월말 기준

마. 통화금융[1)]

(평잔기준, 조원, 기간중 평균금리 연%)

	2016	2017	2018	2019			
				3월	4월	5월	6월
화폐발행액[2)]	92.5 (14.4)	103.0 (11.4)	111.6 (8.3)	117.8 (6.4)	117.6 (7.6)	118.7 (7.5)	118.6 (7.5)
본원통화[2)]	137.4 (13.9)	151.9 (10.5)	165.0 (8.6)	174.8 (8.8)	175.7 (8.8)	176.3 (9.9)	179.5 (9.2)
협의통화(M1)[2)]	734.4 (15.4)	802.0 (9.2)	841.0 (4.9)	862.6 (2.6)	866.1 (3.0)	866.6 (3.2)	873.8 (3.3)
광의통화(M2)[2)]	2,342.6 (7.3)	2,471.2 (5.5)	2,626.9 (6.3)	2,752.7 (6.8)	2,763.1 (6.6)	2,771.6 (6.6)	2,799.2 (6.7)
금융기관유동성(Lf)[2)]	3,229.9 (8.1)	3,445.7 (6.7)	3,686.4 (7.0)	3,889.8 (7.6)	3,910.0 (7.7)	3,929.5 (7.9)	3,965.9 (8.0)
광의유동성(L)[2)3)]	4,260.0 (7.9)	4,551.4 (6.8)	4,850.0 (6.6)	4,955.8 (6.5)	4,969.4 (6.9)	4,999.3 (6.5)	5,059.3 (7.1)
예금은행예금[3)]	1,241.0 (6.6)	1,305.6 (5.2)	1,395.0 (6.8)	1,426.0 (7.7)	1,421.6 (7.6)	1,430.2 (7.3)	1,454.4 (7.5)
예금은행대출금[3)]	1,424.1 (5.7)	1,504.3 (5.6)	1,600.3 (6.4)	1,617.6 (6.0)	1,627.4 (6.1)	1,637.1 (6.1)	1,643.1 (6.2)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4)]	1.48	1.56	1.87	1.95	1.88	1.86	1.79
예금은행 대출금리[5)]	3.37	3.48	3.66	3.66	3.65	3.62	3.49
콜 금 리[6)] (1일물)	1.34	1.26	1.52	1.76	1.75	1.75	1.76
CD(91일물) 유통수익률	1.49	1.44	1.68	1.9	1.86	1.84	1.8

주 : 1)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원계열기준)
2) 최근 1개월 수치는 잠정치
3) 말잔기준
4)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제외)
5)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6) 무담보익일물 중개거래기준

바. 자본시장

	2016	2017	2018	2019			
				5월	6월	7월	8.1~16일
주식거래대금[1] (일평균, 십억원)	4,523.0	5,325.8	6,548.6	5,382.8	4,600.4	4,429.0	5,313.0
KOSPI (기간평균, 80.1.4.=100)	1,987.0	2,311.4	2,323.9	2,086.9	2,105.3	2,079.5	1,943.8
회사채 발행액[2] (기간중, 십억원)	23,670.1	31,213.8	34,802.0	2,628.0	4,763.0	6,130.0	5,300.0
회사채 수익률[3] (기간평균, 연%)	1.886	2.325	2.539	1.974	1.810	1.714	1.512
국고채 수익률[4] (기간평균, 연%)	1.442	1.801	2.100	1.680	1.496	1.381	1.181

주 : 1) 유가증권시장 기준
2) 금융채 제외, 공모회사채 기준
3) AA- 등급의 3년만기 무보증사채 기준
4) 3년만기 기준

사. 물 가[1]

(2015=100)

		2016	2017	2018	2019			
					4월	5월	6월	7월
생산자물가지수[2]		98.18 (-1.8)	101.57 (3.5)	103.48 (1.9)	103.68 (0.6)	103.79 (0.4)	103.49 (0.1)	. .
	공산품[2]	96.49 (-3.5)	101.10 (4.8)	103.31 (2.2)	102.71 (0.0)	103.03 (-0.2)	102.45 (-1.0)	. .
소비자물가지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00.97 (1.0) <1.6>	102.93 (1.9) <1.5>	104.45 (1.5) <1.2>	104.87 (0.6) <0.9>	105.05 (0.7) <0.8>	104.88 (0.7) <0.9>	104.56 (0.6) <1.0>
	공업제품	99.51 (-0.5)	100.94 (1.4)	102.22 (1.3)	101.80 (-0.1)	102.57 (0.3)	102.57 (0.0)	102.23 (0.0)
수출물가지수[2] (원화기준)		96.70 (-3.3)	102.64 (6.1)	103.41 (0.8)	100.51 (-0.5)	103.07 (0.3)	100.79 (-2.7)	100.56 (-5.3)
수입물가지수[2] (원화기준)		95.78 (-4.2)	102.04 (6.5)	108.43 (6.3)	111.21 (5.4)	113.57 (4.5)	109.36 (-0.6)	110.00 (-1.3)

주 : 1) ( ) 및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최근 1개월 수치는 잠정치

아. 기업경영분석[1)]

(%)

	2015[2)]	2016[2)]	2017[2)]	2018[3)]	2019[4)] 1/4
1.재무구조 관련지표[5)]					
부 채 비 율[6)]	128.4 (85.3)	121.2 (80.2)	114.1 (77.0)	91.5 (63.9)	86.7 (69.0)
자 기 자 본 비 율[7)]	43.8 (54.0)	45.2 (55.5)	46.7 (56.5)	52.2 (61.0)	53.6 (59.2)
차 입 금 의 존 도[8)]	31.4 (24.9)	29.8 (23.7)	28.8 (22.7)	25.6 (19.4)	22.8 (19.9)
2.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4.7 (5.2)	5.4 (6.0)	6.1 (7.6)	6.9 (8.1)	5.3 (5.7)
매출액세전순이익률	4.4 (5.0)	4.9 (6.1)	6.1 (7.9)	6.6 (8.1)	5.8 (6.4)
금 융 비 용 부 담 률[9)]	1.3 (1.0)	1.2 (0.9)	1.1 (0.8)	1.2 (0.8)	1.1 (0.9)
이 자 보 상 비 율[10)]	359.2 (539.8)	442.1 (640.8)	537.4 (914.3)	588.4 (1,023.9)	479.2 (625.9)
차입금평균이자율	3.6 (3.6)	3.4 (3.5)	3.3 (3.3)	3.7 (3.5)	4.0 (3.7)
3.성장성 관련지표					
매 출 액 증 가 율[11)]	0.3 (-2.8)	2.6 (-0.6)	9.2 (9.0)	4.2 (4.5)	-2.4 (-3.7)
총 자 산 증 가 율[12)]	5.5 (4.0)	6.3 (5.1)	7.6 (6.5)	3.7 (4.5)	3.2 (2.2)

주 : 1) 전산업 기준, ( ) 내는 제조업 기준
2) 전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에 대한 집계치
3)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에 대한 전수 집계치
4)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에 대한 표본 추계치
5) 기말기준
6) 부채/자기자본×100
7) 자기자본/총자본×100
8) (장단기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9) 이자비용/매출액×100
10) 영업이익/이자비용×100
11) 전년동기대비
12) 전기말대비